

'시민의 삶 변화' 강조

정현을 익산시장, "주변 정치환경 우호적... 원동력 삼아 적극 업무 활용"

정현을 익산시장은 "민선 8기, 새로운 체제가 시작됐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공직자가 중심 행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이어 "민선 8기는 초기 1~2년이 관건"이라며 "새로운 시장 체제로 변화된 것처럼 업무추진의 고삐를 바짝 죄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주마귀편(走馬加鞭)의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상황에 물린 개개인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민선 8기는 시민의 삶의 현장에 깊숙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시민의 삶과 밀접한 지역 갈등 문제를 시민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아, 강력하게 처리해 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푸드플랜 시민참여 '먹거리위원회' 본격 재가동

군산시, 먹거리 계획 시행과 선순환 체계구축 위한 민관 협력체계 마련

군산시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체계 구축과 민간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의 다양한 먹거리 문제를 상호 간 소통해 해결하는 먹거리위원회를 본격 운영한다.

먹거리 환경조성 및 소비자 조직분과, 29일 식품가공 및 안전분과, 30일 공공급식 및 먹거리 복지분과 회의를 실시했다.

최로 다시금 활기를 찾는 듯 했으나, 또 다시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 지난 5월까지 활동이 중단되며 활동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 연내 먹거리위원회 출범식, 시민과 함께하는 먹거리 포럼 등을 개최하며 먹거리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군산시 푸드플랜의 체계적인 시행에 앞장설 방침이다.

앞서, 시 먹거리위원회는 지난 2020년 시민참여를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11월 정식 구성됐으며, 지난해 3월까지 먹거리위원회 역량강화 및 푸드플랜 실행력 강화를 위한 푸드플랜 아카데미를 시작으로 활동했다.

김선주 먹거리정책과장은 "먹거리위원회는 기존의 관 주도의 정책추진이 아닌 시민·행정 내부 조직·관련 단체 등과 소통·협업의 원칙에 입각해 의사결정을 위한 반민·반관 협의기구"로 "이번 기회를 통해 향후 푸드플랜 추진에 있어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시민 중심 먹거리 정책을 실현하고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이 참여해 공론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가족센터&여성회관, 새 이름 '다우리'

익산시가족센터&여성회관의 새 이름이 '다우리'로 결정됐다.

시는 상징성, 창의성, 적합성, 전달성을 기준으로 1차 심사위원 심사, 2차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거쳐 당선작 1건, 가작 3건을 선정했다. △당선작은 '익산시 다(多)우리센터' △가작은 '익산 가족행복누리터', '익산 품에(品愛) 익산시 가족아름다움(여성)누리 문화센터'가 선정됐다.



당선작으로 선정된 '다우리'는 다양한 서비스를 남녀노소 가족 누구에게나 제공해 살기 좋은 다이로문 익산시에서 '우리' 모두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이라는 의미다.

익산=이재춘 기자

이번 명칭 공모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이용 가능한 생활 밀착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시설의 건립을 널리 알리고 친근한 명칭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4월 진행했으며 총 45건이 접수됐다.

군산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김영일 의원, 부의장-김우민 의원

제9대 군산시의회가 4일 의장단 선출과 함께 개원식을 열고 새롭게 출발했다.



김영일 의장



김우민 부의장

군산시의회는 4일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9대 전반기 군산시의회를 이끌어갈 의장으로 김영일 의원(58. 군산시 다산거구)과 부의장에 김우민 의원(54. 군산시 아산거구)을 각각 선출했다.

이어 김우민 부의장은 "김영일 의장을 잘 보필하고 5선 과정에서 쌓아온 의정경험과 노하우를 되살려 동료의원 간 화합과 소통의 교역활동을 충실히 수행해 신명나게 일하는 의회, 시민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제9대 재직의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경구 의장직무대행 사회로 의장선거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단독 출마한 김영일 의원이 22표의 찬성표를 받아 민장일치로 의장에 선출됐으며, 김우민 의원은 22표의 찬성표를 받아 민장일치로 부의장에 선출됐다.

한편 오후 3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9대 의회 개원식에는 김영일 의장의 선창으로 전체 의원이 의원산문문을 이어 김우민 부의장이 대표로 의원윤리강령을 낭독했으며, 김임준 군산시장 및 관내 기관장, 의원 가족, 주민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제9대 시의회의 첫 발걸음을 축하했다.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김영일 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성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동료의원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며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혼신의 힘을 다해 군산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영일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27만 시민의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더 멀리, 더 높이, 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군산 발전을 선도하는 역동적인 의회, 단호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과 정열을 바쳐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이 막중해지고 있다"며 "주민주권 구현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항상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상 정립은 물론 집행부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 완료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은)는 4일 제 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출을 완료했다.

상임위원회 선거를 통해 의회운영위원회장에 김진규 의원, 기획행정위원회장에 장경호 의원, 보건복지위원회장에 오임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장에 김충영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을 위해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규 의회운영위원장은 "의회 안에서 위원회 간 입장을 겸허히 수렴하고 의원 간 의견을 취합하여 조정하고 지원하는 근본적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한층 높아진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에 맞게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보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기대 수준이 높아지는 등 보건복지위원회의 역할이 중차대하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회활동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뿐만 아니라 시민 행복을 위한 최고의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몰입पूर्ण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은 "익산시의 살맛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2년 동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 또한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김충영 산업건설위원장은 "살맛 나는 농촌이 되도록 위원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매진하겠다. 국가식품플러스터 2단계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시민 편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대변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장경호 기획행정위원장은 "익산시의 살맛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무엇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도록 2년 동안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 또한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이날 익산시의회는 상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전반기 의정활동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무리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급 '개시'

익산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 시는 4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에게 카드수수료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지난해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를 최대 240만원 한도 내로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1차 지급 규모는 3,449개 사업장에 4,904건이며, 지급액은 약 20억원으로 예산 확보액의 70%에 달한다.

지원금액 중 50만원까지는 도비와 시비를 함께 투입해 대표자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 규모는 3,449건, 11억8,000만원에 달한다.

지원금액 50만원 초과분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며, 다이로문 정책수당으로 지급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코로나 재확산 대비 방역수칙 준수 당부

익산시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지난 6월 한달간 확진자 수가 첫째주 378명, 둘째주 207명으로 감소하다가 셋째주 250명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여름 휴가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방문 중 개인 위생 주의(비누로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밀폐·밀집·밀접한 장소에서 마스크 올바르게 착용,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밀폐된 공간에서 공기 전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1일 3회, 회당 10분 이상 환기 등을 당부했다.

시는 이일부터 확진자가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과 외래진료센터를 호흡기 환자진료센터로 통합, 8개소를 운영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